

# 오승환 300세이브·최정 400홈런...새 시즌 주목할 기록들

정우람, 투수 최다 출장 신기록(901경기) 눈앞  
‘새롭게 KBO리그 합류’ SSG, 홈런 기록도 관심

2021 신한은행 SOL KBO리그가 오는 3일 팬들을 찾아가는 40번째 시즌을 맞아 다양한 대기록들이 탄생할 눈앞에 두고 있다. 투수 부문은 삼성 라이온즈 오승환의 최초 300세이브와 한화 이글스 정우람의 투수 최다 기록인 901경기 출장, 타자 부문에서는 SSG 랜더스 최정의 400홈런 달성 여부가 주목할 만한 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3월 31일 새 시즌 예상 기록들을 소개했다.

▲삼성 오승환, KBO 리그 최초 300세이브에 도전

지난해 한미일 통산 400세이브를 달성한 오승환은 이번 시즌 KBO리그 통산 300세이브에 도전한다. 오승환은 현재 295세이브를 기록 중이다. 지금까지 KBO 리그에서 300세이브를 달성한 선수는 없다. 250세이브 이상도 오승환, 손승락(전 롯데, 271세이브), 임창용(전 KIA, 258세이브) 뿐이다. 이미 KBO리그 역대 최다 세이브 기록을 보유 중인 오승환은 세이브를 추가할 때마다 리그 역사를 새롭게 쓴다.

▲투수 최다 출장 신기록 앞둔 한화 정우람

정우람은 투수 출장 기록 부문에서 굵직한 기록을 남길 전망이다. 지

난해까지 879경기에 출장한 정우람은 900경기 출장에 21경기 남겼다. 류택현(전 LG)이 보유하고 있는 투수 최다 경기 출장 기록인 901경기도 코앞이다. 통산 두 번째로 12시즌 연속 50경기 출장도 임박했다. KBO 리그 최장 연속 시즌 50경기 출장 기록은 조용천(전 SK)의 13시즌이다.

세이브 기록에서도 정우람은 순위권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이번 시즌 10세이브 이상을 기록한다면 역대 3번째 8년 연속 10세이브 기록이다. 구대성(전 한화), 손승락(전 롯데)의 9년 연속을 턱밑까지 추격 가능하다. 통산 홀드 부문에서도 4위에 올라있는 정우람은 KBO리그에서 180세이브-120홀드 이상을 거둔 유일한 선수다.

▲9년 연속 10승을 노리는 두산 유희관

유희관은 통산 2번째이자 좌완 투수 최초로 9년 연속 10승에 도전한다. 9시즌 연속 10승 이상을 기록한 선수는 이강철 현 KT 감독뿐이다(10시즌 연속, 1989-1998). 유희관이 이번 시즌도 10승 이상을 수확한다면 KBO 리그에서 가장 꾸준한 좌완 투수로 이름을 남길 수 있다.

▲LG 진해수-KT 주권, KBO리그 최고의 중간계투 대결

진해수와 주권은 이번 시즌 2년 연속 20홀드 이상을 기록할 전망이다. 두 선수 모두 최근 2년 연속 20홀드 이상을 기록했다. 3년 이상 연속 20홀드를 기록한 투수는 안지만(전 삼성, 2012-2015) 밖에 없다.



오승환

최근 KBO 리그에서 가장 꾸준한 중간 계투 투수로는 진해수와 주권이 꼽힌다. 두 선수 모두 최근 2년 연속 20홀드 이상을 기록했다. 3년 이상 연속 20홀드를 기록한 투수는 안지만(전 삼성, 2012-2015) 밖에 없다.

진해수는 3년 연속 20홀드 기록과 더불어 6년 연속 10홀드도 바라본다. 이 기록 역시 KBO 리그에서 권혁(전 두산)만이 삼성에서 뛰던 2007-2012시즌 달성한 희귀한 기록이다. 통산 홀드 3위(133홀드)에 올라있는 진해수는 이번 시즌 27개의 홀드 기록 시 권혁의 159홀드를 제치고 통산 2위로 올라서게 되고 45개의 홀드를 기록한다면 안지만의 177홀드를 넘어서 KBO 리그 통산 홀드 1위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SSG맨 최정, 400홈런에 도전

SSG의 최정은 홈런 32개를 추가하면 KBO 리그 2번째로 400홈런 고지에 도달한다. 지금까지 400홈런을 달성한 선수는 '라이언 킹' 이승엽(전

삼성, 통산 467개)이 유일하다. KBO리그의 대표적인 홈런 타자인 최정은 데뷔 2년차였던 2006시즌부터 15년 연속으로 두 자리 수 홈런을 꾸준히 기록하면서 대기록에 한 걸음 다가섰다. 만약 최정이 이번 시즌에도 10개 이상의 홈런을 기록한다면 KBO 리그 역사상 처음으로 16년 연속 두 자리 수 홈런이라는 신기록도 세우게 된다.

▲역대 타점 2위 노리는 KIA 최형우, 키움 박병호는 8년 연속 20홈런 도전

KIA 최형우는 65타점 기록 시 KBO 리그 통산 1400타점으로 이 부문 단독 2위에 올라선다. 키움의 박병호는 역대 2번째로 8년 연속 20홈런에 도전한다. 역대 KBO 리그에서 8년 연속 20홈런을 달성한 선수는 이승엽이 유일하다.

▲롯데 이대호 12년 연속 200루타 도전

이대호는 이번 시즌 200루타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출장과 타격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역 KBO리그 선수 중 이대호를 제외하고 10년 연속 200루타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는 없다. 이대호는 지난해 11년 연속 200루타라는 대기록 달성을 성공했고 KBO리그 최초로 그 기록을 12시즌으로 연장할 준비 중이다.



정우람

한 시즌에 200루타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출장과 타격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역 KBO리그 선수 중 이대호를 제외하고 10년 연속 200루타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는 없다. 이대호는 지난해 11년 연속 200루타라는 대기록 달성을 성공했고 KBO리그 최초로 그 기록을 12시즌으로 연장할 준비 중이다.

▲SSG, KBO 리그 입성 첫 해 팀 최다 홈런 신기록?

이번 시즌 새롭게 KBO 리그에 합류한 SSG는 최주환, 추신수를 영입하며 단숨에 중장거리 타자를 두 명이나 보유했다. KBO 리그 단일 시즌 팀 최다 홈런 기록은 공교롭게도 SK가 가지고 있다. SSG가 SK의 기록인 234홈런(2017년)을 입성 첫 해부터 경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로하스의 자리는 누가?

2020 KBO 리그 정규시즌 MVP이자 장타율, 홈런, 타점, 득점 부문에

서 1위를 차지한 로하스(전 KT)는 리그를 떠났다. 어떤 선수가 새로운 타이틀을 홀더가 될지 주목된다. 지난해 타점과 장타율 부문에서 아쉽게 2위를 차지한 양의지(N)가 올해도 활약을 보일 수 있을 지 기대된다. 알몬테(KT), 프레이타스(키움), 피렐라(삼성), 힐리(한화)와 지난해 활약을 보이며 재계약에 성공한 외국인 타자들 간의 성적 대결도 관련 포인트다.

▲김태형 감독 통산 600승 & 1000경기 출장 동시 달성 노린다

김태형 감독은 이번 시즌 펼쳐지는 144경기 중 86승을 거두면 감독 통산 600승을 달성하게 된다. 현재 KBO 리그 감독 중 가장 재임 기간이 긴 김태형 감독은 이번 시즌 139경기 출장 시 1000경기 출장도 채운다. 김태형 감독에 앞서 1000경기 출장을 달성한 감독은 11명밖에 없다. 가장 최근에는 류중일 전 LG 감독이 2019년에 기록했다.

뉴스

## 백승호 “몇 주간 쉽지 않았지만 모든 게 해결돼 기뻐” 이적 소감



논란 끝에 프로축구 K리그1 전북 현대에 입단한 백승호(24)가 독일 분데스리가2(2부리그) 다름슈타트를 통해 소감을 밝혔다.

다름슈타트는 3월 30일(현지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백승호가 한

스페인 명문 FC바르셀로나 유스 출신인 백승호는 2019년 다름슈타트에 입단해 45경기를 뛰며 3골 6도움을 기록했다.

그러나 올 시즌 주전 경쟁에서 밀려 출전 기회를 잡지 못하자 올여름 도쿄 올림픽을 목표로 국내 복귀를 결심했다. 앞서 전북도 30일 백승호 영입을 발표하면서 “K리그 복귀를 희망하는 백승호가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영입을 결정했다. 선수등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프로축구연맹의 확인 절차도 거쳤다”고 했다.

백승호는 K리그 진출을 추진하는

다름슈타트 “많은 출전 위해 전북 이적 동의”  
전북 “선수생활 이어갈 수 있도록 영입 결정”  
수원 구단은 백승호 측과 법정 싸움 예고

국의 디펜딩 챔피언 전북에 합류한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협상이 마무리돼 기쁘다. 백승호는 분데스리가2에서 뛰는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더 많은 출전 시간을 위해 이적을 요청했고, 전북 이적에 동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정확한 이적료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약 80만 유로(약 10억60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국내 복귀에 성공한 백승호는 “독일에서 두 번째로 높은 리그에서 경험을 쌓을 기회를 준 구단에 감사하다. 다름슈타트는 나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었다. 동료들과 잘 지냈지만, 이제 한국에 돌아가 전북에서 뛰는 것이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몇 주간 쉽지 않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해결돼 매우 기쁘다”라고 덧붙였다.

과정에서 과거 유스 시절 바르셀로나 유학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준 수원 삼성과 대립했다.

당시 수원 구단으로부터 3억원의 지원을 받고, K리그 복귀 시 수원 입단을 약속했지만, 백승호가 전북 입단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뒤늦게 인지한 수원이 제동을 걸었다.

양 측은 이후 몇 차례 만나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수원 구단은 약속한 합의서 위반에 대한 사과와 지원금 외에 위자료까지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백승호의 수원 입단 합의서를 알게 된 전북은 영입 중단을 선언했다가 31일 마감되는 K리그 이적시장을 앞두고 선수의 장래를 위해 영입을 결정했다.

한편 백승호의 전북 입단에 수원 구단은 법정 싸움을 예고했다.



## OK금융그룹·한국전력, 1경기 남겨두고 같은 승점 “끝까지 간다”

봄배구 놓고 3·4·5위 치열...現 3위 KB손해보험도 안심 못해

OK금융그룹과 한국전력이 '봄배구' 진출 티켓을 놓고 싸우고 있다. 이미 시즌을 마친 3위 KB손해보험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OK금융그룹은 4월1일 안산 상록수체육관에서 대한항공과 맞대결을 펼친다. 대한항공이 정규리그 우승, 우리카드가 2위로 순위를 확정할 기운

데 아직 3, 4, 5위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OK금융그룹은 반드시 승점 3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즌 19승 16패(승점 55)를 기록한 OK금융그룹은 3위 KB손해보험(19승 17패·승점 58)에 이어 4위를 달리고 있다.

OK금융그룹은 대한항공과의 시즌

마지막 대결에서 승점 3점을 따낼 경우, 다승에서 앞서 3위로 시즌을 마칠 수 있다.

그러나 승점을 2점밖에 획득하지 못하거나, 패할 경우 '봄배구'에 탈락할 가능성이 생긴다.

OK금융그룹은 자력으로 충분히 3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전에서 사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해 챔피언

연결정전에 직행한 대한항공은 최종전에서는 주전 선수들을 기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전력(18승 17패·승점 55)은 현재 5위에 랭크됐다.

한국전력은 4월2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우리카드와 상대한다. 한국전력은 OK금융그룹이 최종전을 승리한다고 해도, 우리카드전에서 승점 3점을 확보한다면 4위 입성이 가능하다.

한국전력이 승점 3점을 획득하면, KB손해보험과 승점, 다승이 같아진다. 이럴 경우 세트득실률을 따져야 한다.

그러나 한국전력이 최종전에서 세트스코어 3-0 또는 3-1로 이기면, 세트득실률에서 KB손해보험에 앞서기 때문에 포스트시즌에 진출할 수 있다.

한국전력 역시 이미 순위가 결정된 우리카드와 싸운다. 우리카드 역시 휴식을 위해 주전 선수들을 대거 제외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전력은 모두 마친 KB손해보험은 두 팀 중 한 팀이 패하거나, 폴세트 점전을 치르기를 바라야 하는 입장이 됐다.

정규리그 3위와 4위가 격돌하는 준플레이오프는 오는 4월4일 정규리그 3위팀 홈코트에서 개최된다.

뉴스

## 혹시 양현종? 텍사스 감독 “마지막 한 자리, 투수에 무게”

로스터 진입 실패시 마이너리그행 또는 FA 신분

양현종(텍사스 레인저스)이 메이저리그(MLB) 입성이라는 오랜 꿈을 이룰 수 있을까.

텍사스 레인저스는 새 시즌 MLB 개막을 이틀 앞둔 3월31일(한국시간)까지도 개막 로스터를 공개하지 않았다. 총 26명 중 25명은 결정했지만 남은 한 자리가 고민이다.

양현종이 최후의 1인이 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크리스 우드워드 텍사스 감독은

이날 현지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마지막 자리는 투수가 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텍사스가 남은 1장을 투수 중 양현종에게 할애한다면, 양현종은 당당히 메이저리거로 새 시즌을 시작할 수 있다.

올해 초 KBO리그 KIA 타이거즈와의 재계약 협상을 포기하고 미국행 비행기에 오른 양현종은 초정선수로 시범경기를 소화했다.

뉴스